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의 국가관  
(Calvin's View on the State)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40 no.2 (Summer, 1973):8-22

# 칼빈의 國家觀

申 福 潤

序 論	次
I. 칼빈의 國家觀의 背景	IV. 權勢者에 대한 服從
II. 하나님아 새우신 기관인 國家	結 語
III. 國家의 任務	— 政府形態 —

## 序 論

칼빈의 政治哲學은 그 기원을 말씀에서 얻었다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사건들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 中世期文弱은 붕괴라고 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무력한 立憲制度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중세기 民主主義의 이러한 붕괴와 함께 나란히 하여온 것은, 神聖 로마帝國의 유럽에 대한 宗主權이 거부당한 일과,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諸侯들까지도 敎皇의 지배권을 반대한 일이었다. 이와같이 16世紀의 정치적 조류는, 새롭고도 지리적으로 구별된, 좀 더 확실히 말하자면, 같은 民族기리 이루어진 국가체제를 원했던 것이다.

이들 국가의 君主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意志에 의해서만 통치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세기 立憲國家의 잔재들은 독재의 공격을 받아 재빨리 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 新敎의 改革者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主權者들은, 利害關係 혹은 確信 때문에, 또는 兩者를 합하여 그 新

1) Jacob T. Hoogstra, edit.,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p. 111.*

름으로 찬반을 보이는 탈선을 해왔다.

이와같은 부정적인 현실참여의 반응을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할 것이며, 필자는 바른 신학적 이해 속에서 현실참여의 방법과 한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한국교회는 현실참여에 대하여 부정주의적 반응을 지양하여야겠다. 하나님의 주권교리에 입각하여 문화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새로운 선교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의 신앙을 개인의 경전생활에만 적용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생활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일요일의 하나님과 월요일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도록 교인들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현실참여의 방법에 있어서 정치현실에 대한 직접참여를 삼가야 할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① 말씀의 봉사 ② 기도의 봉사 ③ 구제의 봉사의 세 가지이다. 교회 본연의 봉사의 자세를 탈피하여 정치현실에 직접 교회의 이름으로 관여하는 것은 영역탈선과 월권이다. 어디까지나 신앙적 문제에 저촉이 될 때만이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영역에 직접 발언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참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현실참여의 길이 트일 것이다.

출판사 : 총회 [신학대학] 교수 >

### 칼빈의 國家觀

思想에 충성을 바쳤는가 하면, 또 어떤 주권자들은, 그와 동일한 혼합된 이유 때문에 그 사상을 거절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신교의 여러 단체들은 자주 국가에 대한 견해에서 각각 의견을 달리하였다.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지적한 대로,<sup>2)</sup> 그 당시에는 두개의 기본원리가 있었다. 첫째는, 再洗禮派가 주장한 대로, 국가는 가치있는 기능은 조금도 이행하지 못한다는 사상이요, 둘째는 많은 로마 카톨릭派 사람들과 약간의 루터派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王侯는 절대적이며 無制限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상이다.

칼빈은 이 두 개의 사상원리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政府가 없으면 마침내는 無政府 상태 또는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 그리고 절대 군주정치는 흔히 宗教를 억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主權의 王座에까지 올려 놓는다는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올바른 國家形態란 제한된 기능을 완수하는 국가이다. 그것은 인간의 탐심과 無法의 공격을 막아, 인간의 사회구조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사업, 정상적인 교회관계 또는 교회활동을

실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각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각 사회단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을 도와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통치자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福音을 들을 수 있도록 참된 종교를 후원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조건이 응해질 때에만 비로소 국가는 하나님의 요구를 적절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 I. 칼빈의 國家觀의 背景

칼빈의 政治觀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칼빈 자신의 사회적 배경이다. 칼빈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국가의 기능과 권위를 立憲的으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sup>3)</sup>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빈이 古典에서 많은 資料를 끄집어냈다는 점이다.

그가 처음 파리에서 만난 교수들 중의 몇 분은 저명한 플라토 學者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學者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칼빈은 이 古典學者들과 유익한 접촉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세네카의 慈悲論 註釋(Seneca's De Clementia)은 Cicero,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政治學과 플라토의 共和國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政治思想 속에서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같이 古典研究가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칼빈은, 오를레앙(Orleans)大學과 부르제大學(Université de Bourges)에서 法律訓練의 견문을 세웠던 것이다. 자연적으로 법률과정의 초점은 로마法과 키케로, 세네카, 유피안, 그리고 다른 法學者들의 이에 대한 주석들이었다.

여기서 칼빈은, 정부의 조직과 운영을 상세히 배웠을 뿐 아니라, 安定된 정부의 기본적인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운 것 같다. 사실 로마法の 취지는, 절대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상해영향 때문에 이것은 칼빈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

이들 反專制勢力 중의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중세기 법률학자들의 사상이었다. 칼빈은 그들 사상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바 없었지만, 그러나 프랑스의 法律學界에서는 그들의 "인원적인,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사상

과의 접촉을 거의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중세기의 사상가들보다 立憲主義者이면서 더 칼빈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 학자는 프랑스의 人文主義者 Guillaume Budé이다.<sup>4)</sup> Budé가 젊은 칼빈에게 준 영향을 후에 法律의 王者라고 존경을 받은 Pierre Taisan de L'Estoile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와같이 그가 닦은 古典研究와 법률훈련은 입헌적인 정치체제의 길로 달리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상 칼빈은 주로 神學者로 알려진 인물인데, 어떻게 그가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였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칼빈은 自然法에서 그 원리와 실체를 끌어온 異敎思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사의 중의 하나가 바로 國家秩序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異敎의 國家觀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인간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일에 어느 정도까지는 추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罪에서 본 盲目 때문에, 그들이 참된

4) Jean de Terre Rouge, Claude de Seyssel과 같은 학자. 이들은 절대 군주주의는 종교, 기존법률, 의회의 권위, 또는 법령과 같은 기관으로 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5) Budé는 프랑스의 中世紀 법률학자로서 로마法을 통합하려고 노력한 학자였다. 그는 古典사상을 現代思想에 맞도록 현실적 보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 In. N. 10.1(이것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1절을 뜻한다).

3) Hoogstra, op. cit., p. 115.

國家哲學을 얻기 위해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없는 관계상 이교사상가들의 사색과 이론을 마땅히 聖書의 검토를 받아 그들의 올바른 질서와 관제 또는 그 배경을 찾아야 한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칼빈은 古代의 法律思想과 政治思想을 받아들여 그것을 그리스도敎의 근본 원리에 예속시켜 본질상 새로운 체제를 생산해냈던 것이다. 루소가 그의 社會契約論에서, 칼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칼빈을 단지 신학자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天才의 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있는 현명한 法律 속에는, 그의 사상이 막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기독교강요 못지 않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革命時代가 우리 종교에 무엇을 가져왔는가는 묻지 않더라도, 나라와 自由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한, 이 偉大한 人物은 존경으로 기억될 것이다.”<sup>6)</sup>

## II.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國家

칼빈의 주요 관심사는, 국가문제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自由를 확립하는 일, 또는 보호하는 일이었다. “국가 질서는 교회에 安寧을 위해 필요하다.”<sup>7)</sup> 여기서 국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제 2차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국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언제나 이것만을 단독으로 다루지 아니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教會政治家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sup>8)</sup> 그러나 그가 국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면, 이론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구체적인 제도면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이다.

國家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빈이 자주 사용한 말은 Politia이다. 그러나 이 말은 현대국가의 본질과 기능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9)</sup> 이 말은 주로 국가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Politia라는 말은 法律

상의 秩序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칼빈은 국가를 묘사하기 위하여 magistratus(magistrate), praefectus(governor), praefectura(government of a district), res publica(state, government), 그리고 princeps(leader, emperor)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Status란 말은 현대적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나 국가존재의 구조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다.

칼빈은 國家가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地上의 權勢가, 왕이나 다른 통치자의 손에 쥐어진 것은, 인간의 완고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繩理와 그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된 것이다.<sup>10)</sup> 세상의 지혜나 권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입증해 준다…… 이러한 사건들이 인간의 기술이나 그와 비슷한 자연과정을 통하여 오지 않는다는 점, 한편 거만한 왕들은 그 王位를 빼앗기고, 어떤 왕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작위에 올림을 받는다는 점 등은, 경멸의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다.<sup>11)</sup>

그리고 칼빈은 충성스러우며 순종하는 왕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조금도 경솔히 행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야망이나 부패한 욕망을 가지고 국가의 변동을 찾지 아니 하였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王이 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러한 것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그런 것을 생각조차도 아니하였다.”<sup>12)</sup>

君主들이 그런세를, 소위 그리스도의 대타자로 자처하는 교황을 통하여 얻게 된다고 하는 사상을 반대하여, 왕의 권세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칼빈은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칼빈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원수 때문도, 특권층의 옹호자가 된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철두철미 자기의 성서 이학에 따라서, 모든 權威의 기초를 하나님의 권위에 두게 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統治者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神的 權威를 부여 받은 자이다.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sup>13)</sup>

6) Jean Jacques Rousseau, *Du Contrat Social*, Liv. ii. Ch. 7, n. Quoted by Georgia Harkness,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p. 221.

7) OS I, 283(이것은 Petrus Barth와 Guilelmus Niesel이 편집한 *Calvini Opera Selecta* 제1권 283페이지를 뜻한다).

8) William A. Mueller, *Church and State in Luther and Calvi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p. 126.

9) Hans Hausherr, *Der Staat in Calvins Gedankenwelt*. Leipzig: J. B. Teubner, pp. 13-14.

10) *In. N. 20, 4; OS V. 475, 7.*

11) *Commentary on the Prophet Daniel 2: 21.*

12)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2: 1-3(CR 21, 46).*

13) *In. N. 20, 4; OS V. 474, 31.*

라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의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sup>14)</sup> 칼빈은, 그들이 성서에서 “그  
인성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책과 관련하여 神들  
이라고 까지 불리어지고 있다(시 82:  
6)”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sup>15)</sup>

이와같이 통치자의 권위가 하나님  
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 칼빈은  
삼지어는 暴君의 권위까지도 하나님  
에게서 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딤편 2:2과 벨전 2:13과  
같은 중요한 구절을 해석하는 곳에서  
표현해주고 있다.

사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였다. 인간  
이 타락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  
라서, 하나님께서 人類保存을 위해 통  
치자와 王侯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들이 그 神的인 殿堂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그

權勢를 계속 사랑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권세가 그때로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  
든지는 불문하고, 통치자의 법과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구원을 위  
하여 기도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16)</sup>

이와같은 사상은 그의 예레미야書  
註釋에서도 볼 수 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  
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손을 펴서, 기쁘  
신 뜻에 따라 왕과 통치자를 창조하신  
다. 그러므로 칼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들이 비록 폭력을 행사하며 또는 匪  
賊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인 것이  
다.<sup>17)</sup>

이와같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代  
表者<sup>18)</sup>이지만,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 종<sup>19)</sup>이요 관리인<sup>20)</sup>인 것이다. 칼  
빈은, 느브갓네살왕에 대하여 말하는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  
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意志에 따라  
칼을 휘두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  
다.<sup>21)</sup>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통치  
하시기 위해 분명히 종속적인 支配者  
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다고해서  
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權威을 감  
소시키지는 것이 못된다. 또한 자신과  
동일한 지배자를 갖기를 원해서 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는 항상 萬物의 主人으로 계시기 때  
문이다. 가장 偉大한 王이라 해도 하  
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자 어디 있겠  
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다.”<sup>22)</sup>

하나님께서 世界를 統治하시는 方  
식은 그 主權을 다만 간접적으로 행  
사하신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永遠  
하신 왕으로 높이시고 지금은 그의  
도움으로 다스리신다.<sup>23)</sup>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代理者이며, 地

상의 일체의 주권은 “우리 主 예수  
그리스도의 王權의 상징”<sup>24)</sup>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이 세상 통치가 하  
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고 말할 때  
면, 으레 人間的인 主權이 모호하게  
초자연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  
로 생각치 않고, 한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말한  
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겸손  
하게 萬王의 王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靈的 王權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다.<sup>25)</sup> 그  
들의 主權은 이 한분 主님 밑에서 봉  
사하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sup>26)</sup>  
그러므로 통치자가 그들의 義務를 완  
수하기만 하면, “그들이 하는 것과  
우리 主 예수 그리스도의 王國의 질  
서는 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sup>27)</sup>

### III. 國家의 任務

칼빈은 基督敎綱要에서, 敎會와 國  
家, 혹은 그리스도의 靈的 王國과 世

14) *Commentary on Isaiah* 37: 15(CR 36, 626).

15)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2: 7; 82: 1(CR 31, 46; 31, 769); *Comm-entary on Exodus* 22: 28(CR 24, 609f).

16)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p. 51.

17) *Commentary on Jeremiah* 27: 6.

18) 프랑스語의 lieutenants: 英國王에게 보내는 書翰, 1552年(CR 14, 342); *Sermon on 1 Corinthians* 10: 10-11(CR 49, 637f.);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8, 140).

19) 라틴語의 ministri, servi: 申福潤譯, 基督敎綱要, 프랑스王에게 드리는 글, p. 17; OS III, 11, 30; *Sermon on 1 Samuel* 8: 11-22(CR 29, 555); *Commentary on Jeremiah* 27: 6f(CR 38, 544); 43: 8ff(CR 39, 243);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4).

20) 프랑스語의 officier: *Sermon on Deuteronomy* 1: 16-18(CR 25, 645); 5: 16(CR 25, 315);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8f).

21) *In* IV. 20, 26; OS V, 496, 32-497-5.

22) *Sermon on Job* 34: 10-15(CR 35, 152); *Sermon on Deuteronomy* 1: 16-13(CR 25, 645).

23) *In* II. 15, 3; OS III, 475, 18; *In* II, 15, 15; OS III, 479, 1.

24)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2).

25) 英國王에게 보내는 書翰, 1552年(CR 13, 342).

26) *In* IV. 20, 5; OS V, 476: 이 서상의 權勢는, 하나님의 特別作定에 있어서와 같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職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右便에 앉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27)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7).

칼빈의 國家觀

俗政府가 서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밀접한 관련성도 가지고 있음을 밝혀 놓았다.

이 두 영역은 광범하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양자가 다같이 그 起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점,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자가 상호간의 봉사 를 통하여 서로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이 두 영역의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무로 하는 것이다.<sup>28)</sup>

이와같이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대하여 똑같이 그들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통치자의 임무를 몇가지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첫째 임무는, 하나님의 榮光을 유지하며 公禮拜를 보존하는 일이다.

統治者가 세속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인 福利를 돌보는 것이(물론 어느정도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 본래의 임무는 아니다.<sup>29)</sup> 오히려 그들의 중요 관심사는, 그리스도인 社會에서 종교가 공적인 인정을 받아 참된 人間性이 得勢하도록 힘쓰는데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30)</sup>

敎父들과 古代思想에 익숙했던 칼빈은 세속사상가나 고대의 철학자들 異敎人들 까지도 기본적으로 종교나 神的禮拜를 고려하지 않고는 통치자의 임무, 法律制定 또는 公共의 福利같은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sup>31)</sup>

사실상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최근에, 그리스도의 영적이며 내적인 왕국과 세속정부가 서로 구별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양자가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전자는 어느정도, 現世에서도 우리 안에서 天國을 시작한다. 그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서도 영원하며 썩지 아니할 축복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後者는, 우리가 인간세계에서 살고있는 동안, 외부적인 하나님 예배를 육성 또는 유지하며, 교회의 전전한 敎理와 그 存立을 보호하고 우리의 行爲를 인류사회에 적용하며, 우리의 方法을 社會正義 形成에 이바지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相互關係를 조정하여 공동의 평화와 安寧을 보호하는 것을 그

28) In. IV. 20, 2; OS 5, 473, 13; CR 39, 363 (Volui enim. sicut aequum est spiritualem potestatem a civili iudicio distingui).

29) In. IV. 20, 3; OS 5, 473, 34. 칼빈은 가끔 통치자의 임무가 인류를 보존하는데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Commentary on 1 Timothy 2:3(CR 52, 266); Commentary on Titus 3:1(CR 52, 426); Sermon on 1 Timothy 2:1-2(CR 53, 143) 등을 참조하라.

30) In. IV. 20, 3; OS 5, 474, 6.

31) In. IV. 20, 9; OS 5, 479, 27-28.

人間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법률은 어리석은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어디서나 통치자의 神聖한 義務는 "그들이 하나님의 代理者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며 옹호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국민을 다스리도록 힘쓰는 데 있는 것이다."<sup>33)</sup>

칼빈이 하나님 禮拜를 말할 때던 언제나 偶像배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었다. 우상숭배가 억제될 때 비로소 순수한 하나님 예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와 주석에서 말하였다. 육체적인 복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하는 우상숭배, 참담한 행위, 진리에 대한 비방, 종교에 대한 각종의 공격 등, 이 여러 不敬한 자건들이 국민들에게서 발생되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sup>34)</sup> 권세자들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 地上의 王國을 세우시고 통치자들의 손에 권세의 칼을 쥐어주신 것은 十誡命에 대하여 벌

한 죄를 抑制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人間이 존재하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禮拜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권세자의 최고의 義務가 된다는 것을 칼빈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sup>35)</sup>

둘째는 敎會를 보호하는 일이다.

권세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임무는, 福音의 순수한 說敎와 이 설교의 책임을 맡은 敎會를 보호하며 돌봐주는 일이라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칼빈은 당시 福音主義者로 자처하던가, 혹은 福音主義 信仰에 관심을 가졌던 통치자들에게 이 敎會保護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도인 찰스 5世 皇帝에게도 칼빈은 교회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진지하게 경고한 바 있었다.

그리고 칼빈은 對土耳其戰爭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던 그 본래의 참된 위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32) Ibid., OS 5, 479, 39. et praeposteras esseleges quae neglecto Dei iure tantum hominibus conculun.

33) Ibid., OS 5, 480, 6-8.

34) In. IV. 20, 3; OS 5, 474, 1-3.

35) In. IV. 20, 9; OS 5, 479, 39; 480, 5; Sermon on 1 Samuel 7:12-17(CR 29, 53 2); Commentary on 1 Timothy 2:2 (CR 52, 267); Sermon on 1 Timothy 2:1-2(CR 53, 135).

36) Calvin's Tracts, I. 232-233.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 통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敎諭를 보호하며, 복음이 제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히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당부하였다.

셀베루스를 反駁하는 논문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면, 권세자들이 劍으로 간섭해도 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그는 또한 사도행전 주석 서문에서, 그리스도敎 權勢者들은 “그리스도의 統治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그 손에 검을 쥐고 있는 것”<sup>38)</sup>이라고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地上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反逆行爲를 처벌토록 하셨을진대, 하나님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방자한 行爲에 대하여는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이다.<sup>39)</sup> 권세자가 만일 이러한 行爲를 그대로 두면 그

들은 벌써 범죄한 자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권세자는 교회를 존속시키며 教会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教会가 순수한 福音을 설교하도록 잘 들봐주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권세자는, 오히려 主의 尊으로서 教会의 일을 한층 더 전진시켜야 한다. 舊된 敎理를 優勢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도 教会를 후원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권세자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教会,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教会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그 教会의 事業을 증진시켜 주며, 따라서 이 教会가 결정하며 구별짓는 것들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40)</sup> 뿐만 아니라 그들은 福音傳播에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말하고 있다.

37) CR 8, 461ff(셀베루스에 대한 三位一體論 辯護).

38) *The Dedicatory Preface to the Commentary on Acts*. 이 獻辭는 1560年 8월에 작성되었고, 그후 3年의 지나서 칼빈은 Navarre女王에게, 그녀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教会의 安寧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호하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39) *Sermon on Deuteronomy 21: 13-21*(CR 27, 658); 13: 2-5(CR 27, 246).

40) 이 사실과 관련하여 칼빈은 자주 이사야 先知者의 말,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이사야 49: 23)라고 하는 말을 지적하였다. *In N. 20, 5; OS 5, 476, 6; Commentary on Deuteronomy 13: 5*(CR 24, 357); *Sermon on Deuteronomy 13: 2-5*(CR 27, 246); *Sermon on 1 Samuel 7: 11-17*(CR 29, 532); *Commentary on Isaiah 49: 23*(CR 37, 210); *Commentary on Amos 7: 13*(CR 43, 135);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5).

권세자들은, 목사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나 예배에 필요한 일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義務는 가난한 자들을 들보는 등시에 教会가 수척과 飢饉을 받지 않도록 세밀히 돌봐주는 데 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여행자들을 위하여 집을 세우며 教会의 보호와 유지에 필요한 일체를 준비해야 한다.<sup>41)</sup>

권세자의 세재 任務는 法과 秩序를 보존하는 일이다.

위에서 우리는 人間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관제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十誡命의 첫 부분을 성실히 시행하는 것이, 곧 권세자의 임무임을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십계명의 둘째 부분을, 곧 인간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행하는 것이 권세자의 의무가 된다는 것을 다루게 된다.

다른 二重의 義務가 十誡命의 두 부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권세자가 민중의 생활을 성서의 특수한 율법규정에 의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세 律法의 儀式規定과 裁判規定은, 이스라엘 百姓 중에서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그것은

중지되었으며, 다른 민족의 생활질서를 위해서는, 타당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sup>42)</sup> 그러나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두 誡命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필요하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法律을 공포할 수 있는 自由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43)</sup>

그들은 자기네의 이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것이다.<sup>44)</sup> 一國의 民法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sup>45)</sup>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그 市民의 생활을 다스리는 法律이요, 다른 민족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法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영속적인 규범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思想이다.<sup>46)</sup>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代理者로서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보호자요, 無罪와 純潔함과, 명예와 安寧의 옹호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일한 義務는 공동의 平和와 安全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결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통치자는 正義와 公正을 위해서, 共同的 福祉를 반대하는 惡人들과 반대자들을 엄격하

41) *Commentary on Isaiah 49: 23*(CR 37, 211).

42) *In N. 20, 14; OS 5, 486, 24ff.*

43) *In N. 20, 15; OS 5, 487, 27.*

44) *Sermon on Deuteronomy 1: 16-18*(CR 25, 645).

45) *Ibid.*

46) *In N. 20, 15; OS 5, 487, 29.*

게 처벌함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디모데 전서 2:2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만일 권세자가 惡人들을 제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강도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sup>47)</sup>

사실, 권력과 형벌의 공포로, 제재하지 않는 限, 인간은 영악한 짐승보다 훨씬 더 잔인성을 보일 것이다. 은 인류는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정부의 제재, 法과 秩序의 무서운 제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인류가 無政府狀態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규제를 주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天國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모든 權勢者들의 窮極의인 目的이지만, 그러나 인류를 보존하며, 질서 있는 社會生活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또한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칼빈은 國家를 Kulturstaat(教化하는 기관)라는 말로 생각하고, 이 국가의 할 義務를, 하나님의 支配 밑에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된 생활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았다.<sup>48)</sup>

#### IV. 權勢者에 대한 服從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함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代表者로 세우신 통치자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칼빈은 이 국민의 義務에 주의를 일으키는 13:1 주석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움을 받은 까닭이다. 이와같이 하여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權力の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攝理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sup>49)</sup>

위에서도 말했지만, 權勢者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의 본태의 기초가 되는

47)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p. 51.

48) Hans Hausherr, Der Staat in Calvins Gedankenwelt. Leipzig: J. B. Teubner (1923). pp. 15-17.

49) Calvi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R. Mackenzie, trans.), p. 281.

것이다.<sup>50)</sup> "하나님의 意志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sup>51)</sup> 따라서 國家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관계할 것 없이, 크리스천은, 기쁜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하였다.<sup>52)</sup>

한결을 더 나아가서, 칼빈은 惡한 君主까지도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제책으로 보았다.<sup>53)</sup> 이 외에도 칼빈은 "아무리 暴君이라 하여도, 어떤 점에서 인간사회를 공고히 하는 때 도움이 안 될 폭군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54)</sup>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악한 권세자의 지배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反抗할 것이 아니라,<sup>55)</sup>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슴

을 치며 자기 罪를 깨달아야 된다는 점이다.<sup>56)</sup> 한편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구원의 수단을 보여 주신다. 그것은 祈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첫째로, 惡한 지배자가 善政하도록 구할 것이며 둘째는 이 惡政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된 것이며 이 고통의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할 것이요<sup>57)</sup>, 셋째는 正義의 질서가 세워져, 온 人類가 일치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政府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sup>58)</sup>

한편 통치자들은 그들 자신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자기배 지위를 자랑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들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意義있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職責이요 그들 자신이 아니다.

이 직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50) Sermon on Deuteronomy 5: 16(CR 26, 315).

51) Sermon on Titus 2: 15-3: 2(CR 54, 558).

52) Sermon on 1 Samuel 23: 1-8(CR 30, 488).

53) Commentary on 1 Timothy 2: 2(CR 52, 267).

54) Calvi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R. Mackenzie, trans.), p. 282.

55) Sermon on Deuteronomy 5: 16(CR 26, 317); Commentary on Genesis 11: 1ff (CR 23, 197)등을 참조하라.

56) In. IV. 20, 29; OS 5, 500, 1;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1).

57) In. N. 20, 29; OS 5, 500, 5; Commentary on 1 Timothy 2: 2(CR 52, 267).

58) Sermon on 1 Timothy 2: 1-2(CR 53, 131).

이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여기서 온 것이다. 民數記 16장, 고라의 반역을 다루는 주석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한 모세의 표현은 주목할 만 하다. 그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말할 바 없고, 다만 모세와 아론의 뛰어난에 대하여, 다툼 것 뿐이었지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전복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거짓된 구실들을 배척하고 그들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종과 다루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무시위 한다면, 우리의 진실한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sup>59)</sup>

權勢者가 그 직책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은, 그것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어진 어떤 特權이 아니라, 共同의 福利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으로 정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부는 지배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확실하다.<sup>60)</sup>

그러므로 권세자의 국민에 대한 主權은 본질상, 奉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sup>61)</sup> 국민은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권세자는 국민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 相互奉仕關係는, 우리 主님 자신이, 통치자와 被支配者 위에 제쳐서, 人類의 복리를 위하여 世界의 統治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結 語

— 가장 좋은 政府形態 —

우리는 위에서 칼빈의 국가관을 여러면에서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 主流를 이루고 있는 사상은, 그 國家形態가 무엇인지 관계할 것이 모든 국가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사상이다. 그것이 君主政治든, 貴族政治든, 혹은 民主政治든, 政府의 體制마다, 각자는 유익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군주정치는 暴政에 떨어지기 쉽고, 귀족정치는 백타적일 수가 있고, 민주정치는 혼돈과 소란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칼빈은, 보하텍(Bohatec)이나 하우스렐(Hausherr), 그리고 드렐취(Troeltsch)나 파론(Paron)

과 같은 학자들이 본 대로,<sup>62)</sup> 분별히 귀족정치와 민주정치로된 混合政體를 좋아한 것 같다.<sup>63)</sup> 교회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 칼빈이 항상 탄핵한 점은, 一人統治, 혹은 少數 強者統治였다.

절대적인 지배자는, 자기 권세의 한계와 직책의 제한을 쉽게 뛰어 넘는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의 특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權力の 최고발전을 가능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中庸에 있는 것이다.”<sup>64)</sup> 칼빈이 “중용을 지닌 자유”<sup>65)</sup>라는 말을 사용한 데서, 가장 좋은 政府形態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나 君主, 大統領할 것 없이, 통치자들은 마땅히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權勢를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하여 칼빈이 항상 강조한 점은 君王의 방자함과 그 폭군적인 교만을 憲法上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專制主義의 승리를 막고, 立憲的이며 共和政體의 사상을 위한 길을 마련한 것은 정치사상에 있어서 영원히 남을 공헌이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사상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그의 국가관을 有機的인 國家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 자자는 相互奉仕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사상이다. 참으로 그는 “秩序를 위한 愛情”을 갖고 산 人物이었다.

<필자 : 총회 신학대학 강사>

62) William A. Mueller, *Church and State in Luther and Calvin*(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35), p. 162.

63) 그는 古代 이스라엘 歷史에서 이러한 혼합형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하였다.

64) Hans Hausherr. *Der Staat in Calvins Gedankenwelt* (Leipzig: J. B. Teubner, 1923). p. 70. “Der entscheidende Faktor fuer die Guete einer Regierung ist also nicht die moeglichkeit hoechster kroftentfaltung, sondern die Mae-ssigung.”

65) *In.* III. 19.